

파레틴 오렌리 개인전: 도시 유전자 -> 버블 인 더 마인드

Fahrettin Örenli Solo Exhibition: The City Genes -> The Bubble in the Mind

우리의 유전자 위에 내리는 비

오래 전 언젠가

자유로이 흐르는 강들이 있어

바다로, 대양으로 흘렀다

구름으로부터 증류되고 태어난 강이

빗방울과 눈송이에서 나온 강이

흰 눈 덮인 정상이 푸르게 변하는 사이

이 강들은 신비한 토양 깊숙이 파고들었고

존재의 신비와 비밀을 각기 간직한 채

서로를 만났다

때로는 순순하게 때로는 거칠게

한나절의 빛으로 다시 부서져 나오며

강들은 굽이굽이 흘러

산을 타고 언덕을 타고 내렸다

그윽하고 고요한 수분의 녀트로

각기 제 윤곽을 드러내며

와글거리는 삶의 비밀을 품고,

너른 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며

그윽한 지혜의 비밀을 보듬고

바다로 대양으로 흘렀다

오래 전 언젠가

자유로이 흐르는 강들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지혜의 윤곽들이

삶으로 샘솟는 곳에서 다시금 찾아드는 곳까지

하나하나

인류의 도시들에 예속되기 전에

아래로는 지하철 위로는 교량과

콘크리트와 유리 마천루에 갇히어

강들의 굽은 몸은 이제 썩어 부식해

혼탁하게 흐르며

도시에서의 무기 징역을 산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로 나뉜
인류 틈에서, 탐욕과 도착을 부리는
병들고 착란한 몸으로,
단속적으로, 균형 가운데 또 불균형 가운데,
강들은 바다로 또 대양으로 흘러간다

한때 자유로이 흐르던 강들은
이제 도시로 인해 공고해진 윤곽과
탁한 비밀을 품고
씩어 부패한 악취를 풍기며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떠오른다
바다로부터 대양으로부터
푸르른 하늘로 부상하지만
그래봤자 고작
무념하고 오염된 인류의 정보와 응결해
다시 떨어져 내릴 뿐이다
산에 평원에 그 위에 살아가는
생명체들 위로, 그리고 당신 위로,
이제는 어둠에 가린 도시들의 미래 위로
떨어지며 지우고
우리의 진실과 이해와 앎을,
창조 이전의 회귀를 파괴한다

다시금
자유로이 흐르는 강들이
바다로 대양으로 굽이굽이 향한다
우리의 꿈속에서
이어 우리의 3차원, 가상 현실들에서
도시의 휘황한 마천루 언덕들이 초록빛이 될 동안
탁한 빗방울과 잿빛 눈송이
파닥대는 괴이한 미생물로 이루어진 채
강들은 이끼에 뒤덮인 도시의 성층화한 겹겹
사이 깜깜한 터널들로 흘러든다

이끼를 닦은 초록, 분홍, 파랑, 회색: 화폐가
저희 스스로 뼈에서 살을, 살에서 뼈를 분리하며
하나의 휴머노이드 도시, 하나의 도시를 닦은 인간을 만든다
단층적 의식을 지닌 단일한 거대 괴생명체들,
신비한 비밀이라곤 결여된 이들이 미래를 향해
결속한 채 사라져간다
탁한 바다로 탁한 대양으로

번역: 이에원